

# 항문질환

## 치질(치핵)

치질은 항문에 흔히 잘 생기는 치핵과 치루, 치열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치핵이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핵을 치질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 정의

한자어로는 '치(痔)란 말이 이미 항문질환이란 뜻이다. 핵(核)은 '덩어리'란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치핵(痔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항문에 덩어리가 생긴 병'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치핵은 항문의 피부와 점막 밑의 혈관조직이 늘어나고 확장되어 생기는데 혈관을 덮고 있는 피부와 점막이 같이 늘어나서 생긴 살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 원인

-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항문 혈관 안에 피가 고이게 되어 혈관이 늘어난다. 특히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끄리고 앉아 있는 것, 방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좋지 않다.
- 변비가 있어서 변 볼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서 혈관 내에 피가 많이 들어차며 항문혈관이 쉽게 늘어나게 된다. 가파른 산에 등산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골프를 치는 것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 술의 성분인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음주를 많이 하는 것도 치핵이 잘 생기는 원인이 된다.

### 종류

항문 1.5cm에 위치한 치상선을 경계로 치핵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내치핵, 외치핵, 혼합치핵으로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치핵 덩어리가 어느 위치에서 생겼느냐 하는 것이다. 즉, 항문 안쪽 1.5cm 정도에 위치한 치상선을 경계로 그 위쪽에서 생겼으면 내치핵, 아래쪽에서 생겼으면 외치핵, 위아래에 다 생겼으면 혼합치핵이라고 한다. 초기엔 내치핵만 있거나 외치핵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 혼합치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치료

치핵을 근치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치적 치핵절제술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무통수술이나, 간단한 수술, 새로운 수술법 등은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치핵의 치료는 증상의 치료와 근본적인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내치핵과 외치핵의 증상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치핵의 증상에는 탈항과 출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탈항은 치핵 덩어리 자체이고 출혈은 점막이 손상될 때 나타나는 이차적인 증상이다. 따라서 탈항을 치료하는 것은 근본치료이고 출혈을 치료하는 것은 증상치료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탈항은 전혀 없으나 출혈만 심한 분들이 있다. 이때는 출혈의 치료가 근본치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혈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치핵을 절제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외치핵의 증상으로는 늘어진 살(체피)과 혈전이 있다. 이때 늘어진 살은 외치핵 자체라고 말할 수 있고, 혈전은 외치핵 내에 출혈이 되거나 혈액이 응고되어서 생기는 이차적인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늘어진 살을 제거하는 것은 근본치료, 혈전을 가라앉히는 것은 증상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외치핵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은 근본치료이다.

## 예방

치핵은 항문 혈관이 확장되어서 생기는 병이다. 따라서 혈관이 확장되는 습관이나 자세를 피하는 것이 치핵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배변습관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 너무 힘을 많이 주면서 변을 보지 않는다. / 변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쾌변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생활습관

쪼그리고 앉거나 책상다리를 하고 방바닥에 앉는 것은 가능하면 피한다. / 오랫동안 방바닥에 앉아 술을 먹게 되는 자리를 피한다. /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가파른 산에 오르거나 골프를 치면 치핵이 악화될 수 있다.

## 기타 항문질환

### 치열

- 정의: 치열은 항문을 덮고 있는 피부가 찢어지는 것이다. 항문피부가 찢어지면 속에 들어 있던 내괄약근이라는 근육이 노출되고 노출된 근육은 자극을 받아 섬유화라는 변화를 일으킨다. 쉽게 생각하면 근육의 탄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섬유화된 근육 때문에 항문이 점점 좁아지고 변이 나올 때 항문이 어느 정도 이상 벌어지지 않아 그 이상이 되면 항문이 찢어지는 것이다.
- 원인: 대개 변비로 인한 딱딱하고 굵은 변이 원인이 된다. 때론 심하게 반복하는 설사 때문에 항문이 찢어지기도 한다.
- 증상: 통증 감각신경이 존재하는 치상선 아래쪽 항문피부가 찢어지기 때문에 변을 볼 때 출혈 뿐 아니라 통증도 나타난다. 변을 볼 때 노출되어 자극된 내괄약근에 경련이 일어나 지속되기 때문에 변을 본 이후에도 한동안 통증이 지속된다.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방귀가 나온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치열에서 나타나는 출혈은 선홍색이며 대개 양이 많지 않아 변이나 휴지에 약간 묻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론 양이 많을 수도 있다.

### 직장류

- 정의: 약해진 직장 벽이 질 쪽으로 볼록하게 볼거져 나간 것을 직장류라고 부른다. 직장류는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발견이 되나 치료가 필요할 만큼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 원인: 여성에게는 직장과 질 사이의 벽이 상대적으로 얇고 약하다. 따라서 변비가 심해서 변을 볼 때 반복적으로 심하게 힘을 주게 되면 직장-질 벽이 풍선처럼 늘어나게 되어 직장류가 생기게 된다.
- 증상: 변을 밀어내는데 사용되어야 할 힘이 직장류를 늘어나게 하는 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변을 보기가 더 힘들어진다. 따라서 직장 주변을 손으로 누르면서 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 직장류가 큰 경우에는 변을 보고 난 이후에 직장류 속에 변이 걸려 남아 있기도 해서 손가락으로 눌러 변을 짜내거나 파내기도 한다.

### 직장탈

- 정의: 직장탈이란 항문을 통해서 직장이 뒤집혀 나오는 상태이다.

- 원인 :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개 직장벽이 주변 골반근육 등에 단단히 붙어 있지 못해서 뒤집혀 나온다고 보고 있다.
- 증상 : 탈항 비슷하게 직장이 빠져나오지만 탈항과는 빠져 나온 장의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탈에서 빠져나온 장은 주름이 여러 개 겹친 동심원으로 보인다. 탈항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은 변실금이다. 직장탈은 괄약근의 손상이 생겨서 약해지기 때문에 끈끈한 점액이 흘러나오거나 가스나 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변실금의 증상은 직장탈이 오래될수록 점점 심해지게 된다.

## 모소동

- 정의 : 피부 속으로 털이 자라 들어가면서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꼬리뼈 근처 엉덩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위에 생긴다.
- 원인 :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디다만 털이 살 속을 파고 들어가서 생긴다는 주장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교적 살이 많고 몸에 털이 많은 남성에서 주로 생긴다.
- 증상 : 꼬리뼈 위쪽이 반복적으로 고름이 잡혀 부어 오른다.

## 항문소양증

- 정의 : 말 그대로 항문이 가려운 병이다. 항문 주위에 생긴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원인 : 항문주변 피부가 변으로 오염되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항문소양증과 구분해야 할 것으로 항문주변 피부에 진균(곰팡이균)이 자라며 가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특징적으로 산불이 주변으로 번져가듯이 붉은 색의 불규칙한 선이 주변으로 점점 번져가는 피부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 증상 : 특히 밤에 심하게 가렵다. 날이 더워지는 여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려워서 많이 긁게 되면 피부가 상해서 쓰러거나 휴지에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

〈출처 : 대항병원〉